

# “나눌수록 아름다워집니다”

### 헌물건 기증 받아 판매... 수익금은 이웃사랑 실천

지난 19일 오전 10시30분, 광주시 북구 중흥동 광주역 앞 ‘아름다운 가게 광주역점’, 오전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등산복 차림의 남성 서너명이 들어와 진열된 물건들을 살펴느라 분주하다.

50평 남짓의 가게 안에는 앞치마를 두른 50대 중년 여성들이 밝은 미소로 매장을 찾은 손님을 반갑게 맞는다. 무엇을 살지 고민하는 고객들에게 물건에 대한 친절한 설명도 빼놓지 않는다. 가게에는 의류에서 장난감, 책, 그릇 등 잘 손질된 ‘헌 물건’들이 보기 좋게 진열돼 있다. 손님들은 슬만해 보이는 반팔 티셔츠를 2천원에 사두고 가게 문을 나왔다.

집 안 썩은 옷이 있던 헌 물건들을 재활용해 불우이웃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아름다운 가게’가 광주·전남에서도 소리없이 자리 잡고 있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여섯번째로 문을 연 아름다운 가게 광주역점은 개점 한

달만에 하루평균 150~200명이 다녀가는 등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재활용 물품을 아름다운 가게에 내놓는 기부자 뿐 아니라 구매자도 나눔운동에 동참한다고 볼때 기부 문화가 자연스럽게 정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기부문화 확산 앞장**

광주·전남에서 가장 먼저 문을 연 것은 지난 2003년 12월 광주시 광산구 생암동 비마트 내에 들어선 철단점. 이후 불과 2년여만에 광주 쌍촌점, 목포 하당점, 순천 매곡점, 여수 문덕점 등이 잇따라 문을 열었다.

광주·전남의 6개 지점에서 2004~2005년 2년 동안 수익금으로 이웃 사랑을 실천한 금액은 2억3천564만3천110원에 달한다. 특히 지난해 말 호남 지역을 휩쓸었던 폭설 사태에는 광주·전남 7천만원, 전북 3천만원의 긴급 구호 성금을 내놓기도 했다.

아름다운 가게는 기부를 원하는 사람이 이곳에 전화를 걸면 직접 기부자에게 가서 물건을 수령한 뒤 정성껏 손질해 매장에 내놓는 시스템이다.

물론 가게에 직접 찾아가서 재활용품을 기부해도 된다. 광주시청, 광주은행 등에서 재활용품이나 중고품을 기증하는 등 등 최근에는 단체로 기부에 참가하는 일도 늘어나고 있다.

아름다운 가게 광주·전남본부 서영권(34) 팀장은 “지방에서는 처음으로 광주에서 아름다운 가게가 열렸다는 것은 광주시민들의 나눔 정신을 보여준 것”이라며 “자원봉사자, 기부자 등 수많은 시민들의 참여로 인해 아름다운 가게가 점점 힘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각 지점 당 하루 평균 10여명의 기부자가 가게를 찾고 있으며, 자원봉사자 수는 지점



지난 19일 오전 아름다운 가게 광주역점이 자원봉사자와 손님들로 북적이고 있다. 전국에서 64번째로 개점한 광주역점은 하루 평균 150~200여명의 손님이 다녀가는 등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당 40~50명으로 광주·전남 전체를 통틀어 200여명에 이른다.

### 광주·전남 6개지점 운영

일주일일 두번 아름다운 가게 광주역점에서 점원으로 일하고 있는 강영희(55·광주시 남구 진월동)씨는 “다른 자원봉사활동과 달리 철저히 무보수로 일하기 때문에 스스로에게 담당하고 자부심을 느낀다”며 “아름다운 가게에서 행사가 있는 날이면 남편도 차량 봉사를 하는 등 식구 모두가 아름다운 가게의 ‘팬’”이라고 말했다.

한편 아름다운 가게는 헌 물건을 판매해 얻은 수익으로 제3세계의 빈곤 구제와 사회 지원에 사용하고 있는 영국의 옥스팜(Oxfam)이 모델이다. 기부 및 지점 위치 문의 062-953-8975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 종교칼럼

오덕호



외국 영화의 한 장면이다. 큰 돈을 잃어버린 후 낙심한 주인공이 자살하기 위해 다리로 가는데 하늘에서는 이 사람을 살리려고 천사를 보낸다. 지상에 내려온 천사는 한 겨울에 강으로 뛰어들려고 하는 이 사람을 보며 자기가 먼저 강에 빠진다. 그리고 살려달라고 소리친다. 자살하기 위해 다리에 서 있던 주인공은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강으로 뛰어든다. 자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사랑하느냐에 따라 선하게 강해지기도 하고 악하게 강해지기도 한다는 것이다. 만일 돈을 사랑하면 강해지는 것도 타욕 때문에 악한 모습으로 강해지는 것이다.

그러면 무엇을 사랑해야 선하게 강해지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 사랑을 가르쳐준다. 하나는 거룩하고 선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선하게 강해진다. 그러면 세상에

### 사랑의 힘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이다. 비록 영화의 한 장면이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준다. 사람은 도와야 할 사람이 생기면 놀라운 힘이 생긴다는 것이다. 자기 생각만 하는 사람은 어려울 때 좌절하기 쉽다.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를 돕기 위해 불굴의 힘을 얻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자는 약하나 어머니는 강하다”라는 말도 있지 않은가? 왜 연약하던 여인이 어머니가 되면 강해지는가? 사랑하는 자녀가 생겼기 때문이다.

이렇게 사람은 사랑할 때 강해지지만 여기에도 함정이 있다. 그것은 무엇을

서 정말 보람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웃을 사랑하면 이웃을 유익하게 해주는 사랑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사랑 속에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더 좋은 것은 이런 사랑의 삶이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고 천국에서 큰 상급도 받게 해준다는 것이다.

우리가 돈이나 권력을 사랑해 악하게 강해지기 보다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해 우리와 이웃 모두가 더 큰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서석교회 목사)

### 亞여성가톨릭수도자 100여명 한국 온다

#### 24일부터 경기 의왕서 AMOR 총회

한국, 일본, 파키스탄, 싱가포르, 대만 등 아시아 각국의 여성 가톨릭 수도자 100여 명이 한국에서 모인다.

천주교 장상연합회는 제 14차 AMOR (Asia-Oceania Meeting of Women Reli-

gious)총회가 오는 24일부터 5월 4일까지 경기도 의왕시 나자로의 마을 아른에 집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의 주제는 ‘마리아와 아시아, 오세아니아의 여성 수도자-관상적 예언자’. 한국에서 AMOR총회가 열리는 것은 1985년 제 7차 회의 이후 21년만이다.

행사기간 동안 가톨릭 여성 수도자들은

주제발표와 토의, 워크숍 등을 통해 각 나라의 현실에 대해 깊이 참여하게 된다. 27일부터 29일까지는 그룹별로 이주노동자, 가톨릭농민회, 환경운동 현장 등을 찾아 현장의 소리를 직접 듣는다.

‘아시아, 오세아니아 여성 수도자들의 모임’이라는 뜻의 AMOR (아몰)은 3년에 한 번씩 열리는 행사로 여성 가톨릭 수도자들이 모여 아시아의 문제점과 전망, 종교인으로서 정의를 실천하기 위한 공동 방향을 모색하는 모임이다.

/곽선정기자 ksj@kwangju.co.kr

### 예수교장로회 광주노회 회장에 박사현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교단광주노회는 지난 18일 광주 양림교회에서 제28회 정기총회를 열고 광주 초향교회 박사현(52) 목사를 노회장으로 추대했다.

김윤천 목사(나주 영광 교회)를 부노회장으로 각각 선출했다.

/곽선정기자 ksj@kwangju.co.kr

### “말아톤’ 주인공 배형진 군과 달려요

#### 전남직업능력개발센터, 내일 함평서 마라톤 대회

전남직업능력개발센터(원장 김옥주)는 22일 오전 9시 함평 공설운동장에서 ‘장애인 과 함께하는 제6회 함평나비마라톤대회’(주관 함평나비마라톤클럽)를 개최한다.

장애인과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대회에는 일반인 뿐만 아니라, 장애인 200여명, 도우미 50여명 등 모두 5천여명이 참가한다. 풀(42.

195km), 하프(21.097km), 단축(10km), 걷기(6.5km), 장애구간(6.5km) 등 5개 구간으로 나누어 진행되며 ‘장애인 고용! 전남센터가 함께 합니다’는 내용의 장애인 인식개선 캠페인도 벌인다. 이번 대회에는 영화 ‘말아톤’의 실제 주인공 배형진 군과 배군의 어머니도 함께 뛴 예정이다.

/곽선정기자 ksj@kwangju.co.kr

**프로노출전문지**

**2006년 4월 21일**

**2006년 4월 21일**

**2006년 4월 21일**

**중고차 최고가 싼다**

**종합병원 직업부지 매매**

**침하된 구조물복원 및 연약지반 강화공법의 신개념**

**유리벽 공법도 복원**

**유리벽 공법도 복원**

**유리벽 공법도 복원**

**제일모직 outlet** 천대일구 사거리

**60~40% 할인**

**제일모직 본사 직송상품만 취급**

**백화점 1벌 가격으로 2벌 혜택**